

가정법률상담

통권 499호

2025

03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소의 2025년도 정기 전기 이사회가 지난 2월 27일 열려 2024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어 소장 선출과 관련하여 만장일치로 곽배희 소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관련 기사 34면)



본소의 2025년도 제1차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김상용)가 지난 2월 6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직원재교육을 겸해 이루어졌다. (관련 기사 34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청 : 청렴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렴 : (염)치없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4 · 이달의 메시지

6 · 특집 ❶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년도 상담통계

20 · 특집 ❷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년도 상담통계 - 다문화가정 영어 법률상담

22 · 특집 ❸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년도 소송구조 통계

26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 ⑦

27 · 가정폭력상담실

29 · 어떻게 할까요

31 · 좋은 책

이처럼 사소한 것들

32 · 실무수습 소감문

34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37 · 소송구조



가족문제 해결 없이 인구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호주제 폐지 국회 통과와 그날을 기억하며

각 학교가 입학식을 하면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3월은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마치 두 번째 새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부산하고 설레는 달입니다. 아직 겨울의 찬 바람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완전한 봄이 몸과 마음의 새로운 결심을 부르기도 하는 계절입니다.

20년 전 3월 2일 바람 많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증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저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6년 상담소 창설과 함께 계속되어 온 가족법 개정운동이 큰 산을 넘으려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상담소는 창설부터 상담소 목적사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가족법 개정에 뜻을 두었고 주도적으로 운동을 이끌어 1962년, 77년, 90년 세 차례에 걸쳐 커다란 결실을 맺은 바 있었으며 이어 결정적인 과제로 남아있던 '호주제'가 마침내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국회는 이날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표로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남녀차별, 부부차별의 근간이었던 호주제를 마침내 역사의 저편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상담소는 현실의 가족을 반영하고 가족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복리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제정과 개정 운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이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상담소에서 바라본 한국 가정의 현실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가정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예전에는 짐작도 할 수 없었던 문제들로 가족구성원 간 갈등과 마찰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는 가정의 민주화를 위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호주제 존치론자들이나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이들은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해체되면서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은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 사회가 너무 늦기 전에 시대착오적인 호주제를 폐지하고 21세기에 맞는 민주적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을 정비할 수 있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단계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인구문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잠깐 출생률이 상승세를 보였다고는 하나 이것이 현재의 인구문제 흐름을 바꿀만한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희일비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올해 문을 닫을 예정인 초·중·고교가 전국에 총 49곳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지방 학교가 43곳으로 전체의 88%에 달하며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184곳으로 잠정 집계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지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신이 다니던 학교가 더는 학생이 없어 폐교하는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느 한 사람이나 단체 그리고 한두 해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중장단기의 정책과 사회 구성원의 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께 지속해야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서야 할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참담한 상황에 그대로 드러

나 있습니다. 폐지가 공론화되었던 여성가족부는 현재 명맥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여성가족부가 진정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여성, 가족의 문제가 그 핵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2년 10월 당시 대통령실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되 업무를 그 성격에 맞게 관련 부처로 이관하여 시대 변화에 맞춰 그 내용들을 기능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 몇 가지 로드맵도 제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좌초되면서 2023년 7월에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 우려를 표하는 유엔 측 공개서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당시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여성가족부는 오늘까지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과거에 해오던 현상 유지만을 위한 업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정부는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하기도 했으나 이것은 다만 저출생 대응 목적의 가족정책 예산 중심의 증액이었고, 양성평등 정책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42조”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과 가족, 인권의 문제를 과제로 안고 있으며 - 이는 인류 사회 전체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 이 문제와 관련 올바른 방향의 설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의 협업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의 인구문제는 사회적 과제인 동시에 근본적으로 가정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가정문제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자각과 해결에 대한 노력 없이 근본적인 해결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상담소는 70여 년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가족과 관련한 사회 전체적 과제의 해답을 찾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는 길을 함께 하고자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집 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년도 상담통계

2024년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통계

이혼 초상담 2,247건, 재상담 2,818건

여성은 40대(29.7%), 남성은 60대 이상(43.6%)이 가장 많아

이혼상담 최고령자는 남성 90세, 여성 89세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총 53,473건을 상담하였다.

상담처리별로 분석하면, 법률상담 44,575건, 화해조정 7,331건, 소장 등 서류작성 482건, 소송구조 1,085건이었다. 상담방법별로 분석하면, 면접상담 21,100건, 전화상담 31,135건, 인터넷상담 1,145건, 서신상담 76건, 지상상담 11건, 순회상담 6건이었다.

면접상담은 총 21,100건이었다. 사건내용은 크게 가사·민사·형사로 분류하는데, 가사사건이 20,010건으로 면접상담의 94.8%를 차지하였으며, 민사사건이 919건(4.4%), 형사사건이 171건(0.8%)이었다.

면접상담 중에서는 이혼상담이 24.0%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2023년 23.6%→2024년 24.0%). 한편, 이혼에 대한 협의를 끝내거나 이혼을 한 후 미성년 자녀와 관련해 좀더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오는 경우에는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는데 이러한 항목들 역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친권·양육권 1.8%→2.3%, 양육비 5.6%→6.7%, 면접교섭권 0.5%→0.7%).

아래에서는 면접상담 중 비중이 높은 이혼상담 등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혼상담 분석

총 5,065건,

여성내담자 4,054명(80.0%),

남성내담자 1,011명(20.0%)

주요 내용

- 이혼 초상담 2,247건, 재상담 2,818건
- 여성은 40대(29.7%), 남성은 60대 이상(43.6%)이 가장 많아
- 이혼상담 최고령자는 남성 90세, 여성 89세

● 여성 이혼상담 사유

- 1위 남편의 부당대우(폭력)
- 2위 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폭언 순)
- 3위 남편의 가출

● 남성 이혼상담 사유

- 1위 기타사유
(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경제갈등 순)

2위 아내의 가출
3위 아내의 부당대우(폭력)

- 이혼상담 여성 59.1%, 남성 13.6% 배우자의 폭력 등 부당 대우 호소
- 이혼상담 남성 27.2%, 여성 9.6% 배우자 가출 호소
- 노년층 이혼 상담 비율 가파르게 증가
60대 이상 여성
(2004년 6.2%→2014년 14.8%→2024년 22.0%)
60대 이상 남성
(2004년 8.4%→2014년 26.1%→2024년 43.6%)

● **노년 여성**
평생 맞고 살았는데 남편 폭력 계속 이어져
나이 들어서도 가사 노동 강요, 은퇴도 없어
젊어서 밖으로 돌던 남편, 은퇴 후 집안 일 사사건건 간섭

● **노년 남성**
평생 일했는데 나이 들어서도 생활비 벌여오라 강요
은퇴하자 쓸모 없는 사람 취급, 아내는 밖으로만 돌아
가족 위해 살았는데 나이 들자 아내, 자녀가 모두 외면

상담소에서는 총 5,065건의 이혼상담을 진행하였다. 이 중 여성내담자는 4,054명이었고, 남성내담자는 1,011명이었다.

● **83세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자녀와 함께 방문)

얼마 전 남편이 내 가슴을 밀쳐 거실에 넘어졌다. 병원에 가기 위해 돈을 달라 했더니 주지 않았다. 남편은 내가 받는 노령연금 26만원으로 모든 생활을 다하라 하였다. 너 같은 건 한 손에 죽일 수 있다며 수시로 위협하였다. 2년 전에도 남편에게 맞았다. 계속 당하고만 사는게 억울해 나도 폭언을 하고 물건을 던졌더니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남편은 외도를 한 적도 있는데 증거자료는 없다.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내 몫의 재산을 분할 받고 이혼하고 싶다.

● **84세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아내와 따로 산 지 20년이 넘었다. 성격이 맞지 않아 사는 동안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 결국 20년 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내가 집을 나와 별거가 시작되었다. 현재 나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몸도 좋지 않고 고달프다. 법적으로만 남은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으나 아내의 연락처를 알지 못했다. 겨우겨우 딸과 연락이 닿아 딸을 통해 아내에게 이혼의사를 물었더니 아내도 이혼에는 동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거동이 어려워 법원에는 나올 수 없다는데 이혼하는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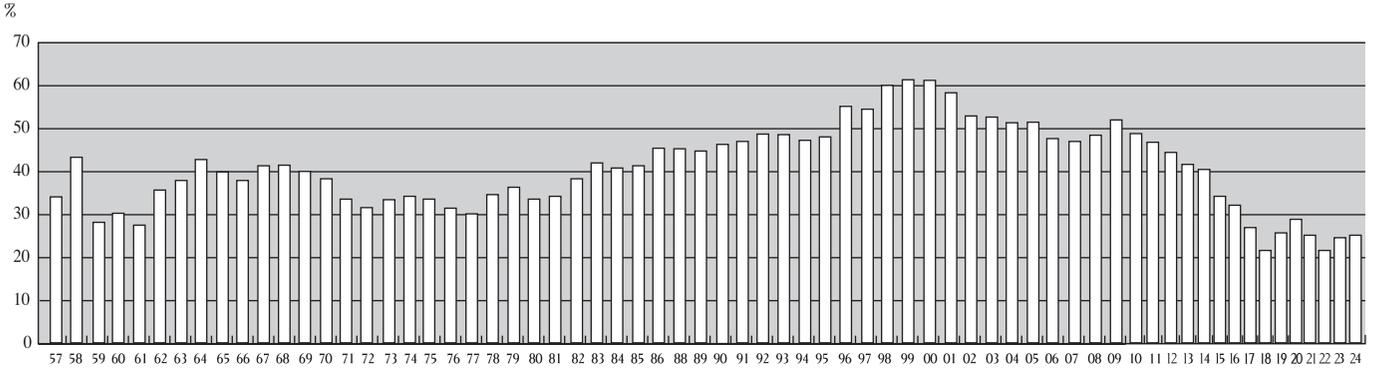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
나이차는 남편 1-2년 연상, 혼인기간은 1-11년,
여성 직업은 전업주부, 남성 직업은 회사원,
남녀 모두 초혼,
남녀 모두 고졸의 이혼상담이 가장 많아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의
이혼상담 비율이 가장 높아

여성은 40대(1,206명, 29.7%), 30대(902명, 22.2%), 60대 이상(891명, 22.0%), 50대(853명, 21.0%), 20대(192명, 4.7%), 10대(10명, 0.2%) 순으로, 남성은 60대 이상(441명, 43.6%), 50대(272명, 26.9%), 40대(208명, 20.6%), 30대(75명, 7.4%), 20대(13명, 1.3%) 순으로 나타나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성의 경우 20년 전인 2004년에는 40대(20대 6.5%, 30대 32.9%, 40대 35.5%, 50대 18.9%, 60대 이상 6.2%)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 50대, 20대, 60대 이상의 순이었다. 10년 전인 2014년에는 40대(20대 4.3, 30대 21.0%, 40대 34.2%, 50대 25.7%, 60대 이상 14.8%)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50대, 30대, 60대 이상, 20대 순으로 나타나 2004년과 비교해 볼 때 50대, 60대 이상의 순위가 상승하였다. 2024년에는 40대, 30대, 60

연도별 이혼상담 비율



대 이상, 50대, 20대, 10대(10대 0.2%, 20대 4.7%, 30대 22.2%, 40대 29.7%, 50대 21.0%, 60대 이상 22.0%) 순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의 순위가 더 상승하였다. 2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30대는 32.9%에서 22.2%로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은 6.2%에서 22.0%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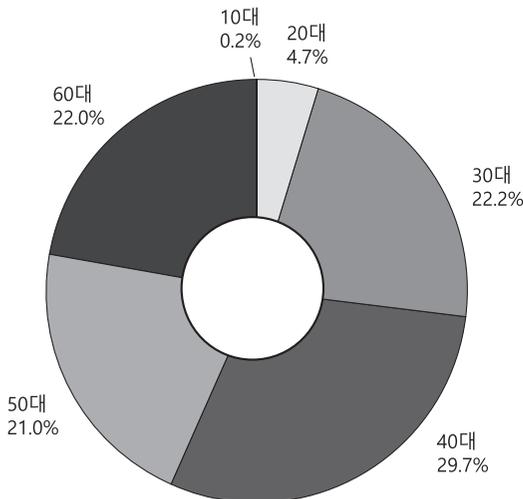
남성의 경우 20년 전인 2004년에는 30대(20대 3.3%, 30대 37.3%, 40대 30.6%, 50대 20.0%, 60대 이상 8.4%)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50대, 60대 이상, 20대 순이었다. 10년 전인 2014년에는 40대(20대 1.5%, 30대 16.3%, 40대 30.7%, 50대 25.3%, 60대 이상 26.1%)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60대 이상, 50대, 30대, 20대 순으로 나타나 2004년과 비교해 볼 때 40대, 60대 이상의 순위가 상승하였다. 2024년에는 60대 이상(20대 1.3%, 30대 7.4%, 40대 20.6%, 50대 26.9%, 60대 이상 43.6%) 순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이 1순위를 차

지하였다. 2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30대는 37.3%에서 7.4%로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은 8.4%에서 43.6%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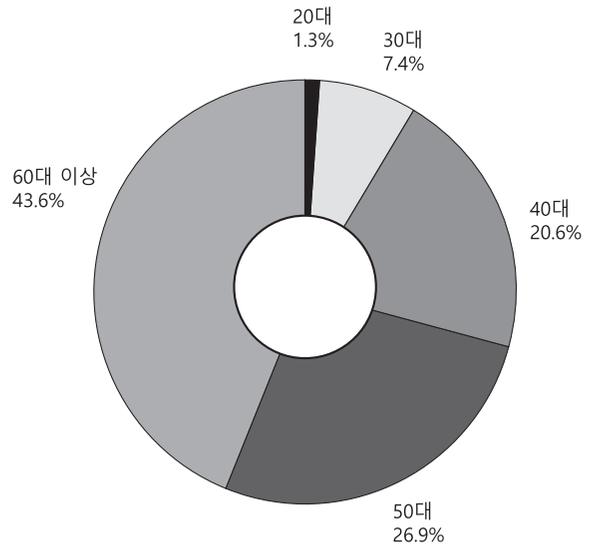
● 여성 40대 이혼상담 사례

(내담자 여성 40대 / 상대자 남성 60대)

남편의 폭언이 매우 심하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아이들 앞에서 서슴지 않고 폭언을 해대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신용불량자이다. 그래서 재산 명의를 모두 내 앞으로 해놓았는데 내게도 계속 돈을 요구해 현재는 나도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다. 계속 이혼을 고민했으나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 채무까지 감당할 자신이 없어 이제껏 미뤘었다. 그런데 더 이상은 나도 견딜 자신이 없어 이제 이혼을 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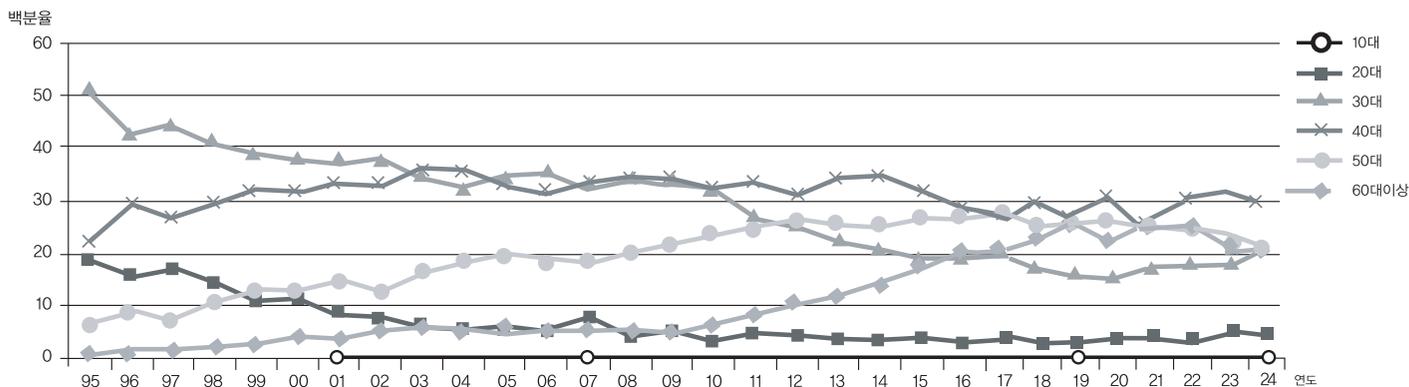


여성의 연령별 이혼상담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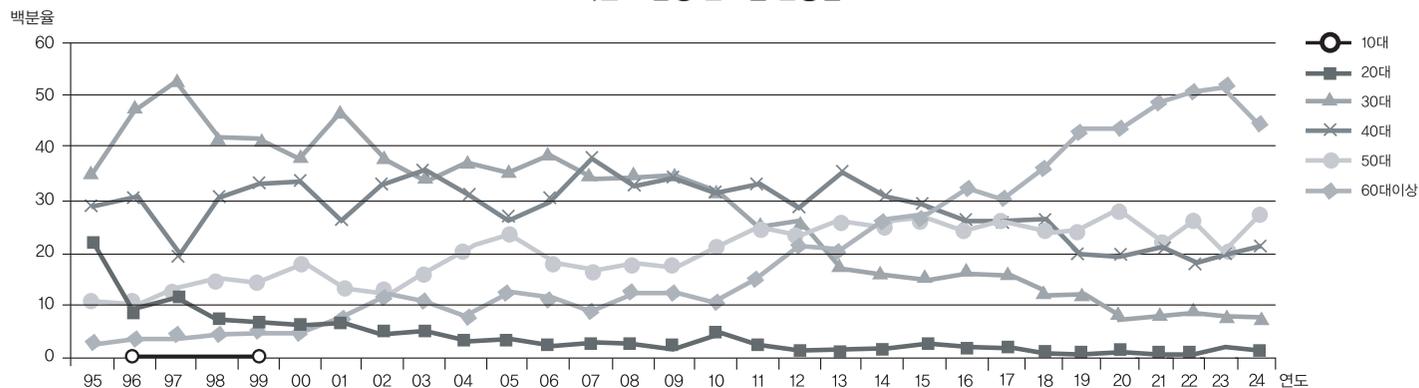


남성의 연령별 이혼상담비율

이혼 - 여성 연도별 연령별



이혼 - 남성 연도별 연령별



● 남성 60대 이상 이혼상담 사례
(내담자 남성 60대 / 상대자 여성 60대)

아내와 오랜 기간 각방생활을 하며 남처럼 지내왔다. 아들은 취업도 안하고 빈둥거리고 있어 나와 사이가 좋지 않다. 아내는 아들만 감싸며 서른이 넘은 아들을 여전히 키우고 있다. 아내가 나더러 집을 옮겨 달라 해서 3개월 전부터 별거 중이다. 이렇게 사느니 그냥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아내에게 수차례 얘기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 재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게 나눠 주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다. 이러다 한 푼도 못 건질까 불안하다.

이혼상담 사유 분석

여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4,054건)

- 1위 '남편의 부당대우(폭력)'
(민법 제840조 3호)(59.1%, 2,396건)
- 2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폭언, 빚,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등이 우선 순위임)
(6호)(25.4%, 1,028건)
- 3위 '남편의 가출'(2호)(9.6%, 390건)

남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1,011건)

-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경제갈등, 알콜중독,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등이 우선 순위임)(6호)(54.0%, 546건)
- 2위 '아내의 가출'(2호)(27.2%, 275건)
- 3위 '아내의 부당대우'(3호)(13.6%, 13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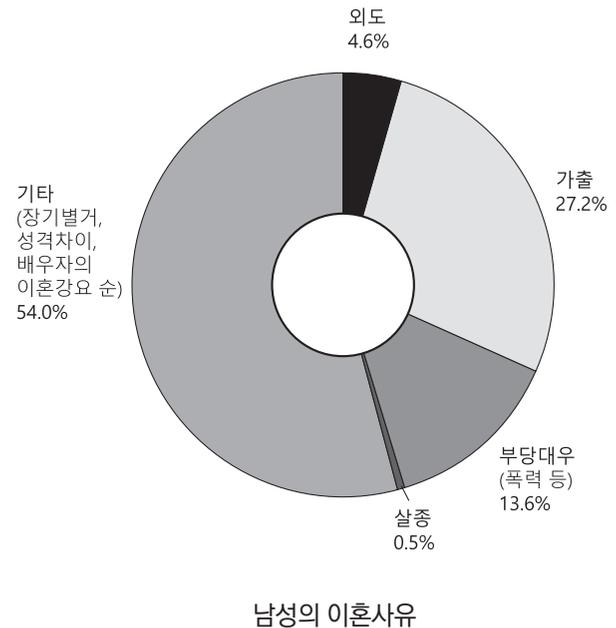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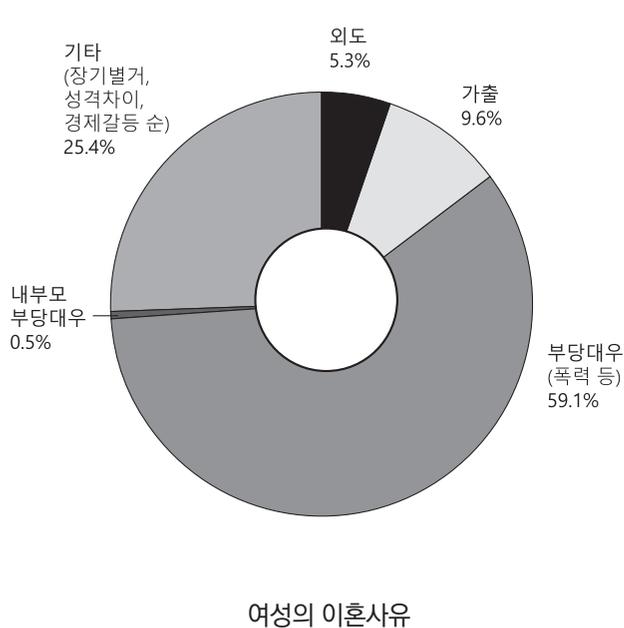
여성의 59.1%가 남편 폭력 호소해
남성의 43.5%가 아내의 가출, 장기별거 호소해

여성의 이혼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민법 제840조 3호 '배우자의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꼽은 경우가 59.1%(2,396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25.4%, 1,028건), 2호 '남편의 가출'(9.6%, 390건)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59.1%가 남편의 폭력을 이혼상담 사유 1순위로 꼽았다. 특히 남편의 폭력을 이혼 사유로 주장한 여성의 비율은 2020년 48.3%, 2021년 48.8%, 2022년 53.9%, 2023년 56.5%, 2024년 59.1%로 계속 증가하였다.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98년 가정폭력특별법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남편 폭력 때문에 고통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을 통해 보면 남편 폭력을 신고할 경우 보복이나 경제적 압박 등이 두려워 적극적인 대처를 못해왔다는 이들이 많았다. 한편, 고통 속에서도 자녀들을 위해 살아왔으나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된 자녀들에게서도 심각한 우울증이나 불안 증 등이 나타나 결국은 이혼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경우도 많았다.

남성의 경우에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꼽은 경우가 54.0%(54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호 '아내의 가출'(27.2%, 275건), 3호 '아내의 부당한 대우'(13.6%, 138건) 순이었다. 한편, 1순위인 기타 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가 165건으로 가장 많았다.

남성의 43.5%(전체 1,011건 중 아내 가출 275건, 장기별거 165건)가 아내의 가출이나 장기별거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된 지 오래되었다고 호소해왔다. 아내의 가출을 이혼 사유로 주장한 남성의 비율은 2004년 21.0%, 2014년 22.3%, 2024년 27.2%로 계속 증가하였다. 또한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15.4%, 30대의 21.3%, 40대의 22.6%, 50대의 29.0%, 60대 이상의 29.7%가 아내 가출을 이혼 사유로 제시해 노년층으로 갈수록 아내의 가출을 호소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상담을 통해 보면, 가출이나 별거 전에 외도, 빚, 폭력 등 선행문제가 대부분 있었는데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가출이나 별거를 진행한 후 그대로 시간이 지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노년층으로 갈수록 가출을 이혼사유로 제시하는 이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 여성 60대 이혼상담 사례(폭력)
(내담자 여성 60대 / 상대자 남성 60대)

혼인 초부터 남편의 폭력이 심해 이혼했다. 그런데 딸이 정신적으로 아팠고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다시 재결합하였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성은 더욱 심해졌고 칼을 들고 위협까지 해 경찰에 신고한 적도 많다. 이후 나는 늘 주눅이 들고 우울감이 심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근래 들어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다. 남편은 내게 이제껏 생활비를 준 적이 한 번도 없다. 재산은 전혀 없고 내가 청소일을 해 겨우 먹고 살고 있다. 이혼하는 방법은?

● 남성 60대 이혼상담 사례(가출)
(내담자 남성 40대 / 상대자 여성 50대)

98년에 혼인하였다. 나는 재혼이었고 상대는 초혼이었다. 당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고, 성격차이도 심해 살면서 계속 다투었다. 결국 2년 정도 살다가 아내가 집을 나가 버렸다.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 나는 택시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에 정부 지원을 받고자 했더니 배우자가 있어 어렵다고 한다. 아내가 있을 만한 곳에 찾아가 오래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했다. 이제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절차는?

남녀 모두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등이 많아

6호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6호사유(총 1,028건) 중 ‘장기별거’로 인한 상담이 16.8%(17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15.5%(159건), ‘경제갈등’ 10.8%(111건), ‘폭언’ 6.1%(63건), ‘빚’ 4.3%(44건),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3.6%(37건), ‘불성실한 생활’·‘배우자의 이혼강요’ 각 3.3%(각 34건), ‘불신’ 2.6%(27건), ‘알콜중독’ 2.4%(25건), ‘정신병’ 2.2%(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도 6호사유(총 546건) 중 ‘장기별거’로 인한 상담이 30.2%(16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27.5%(150건), ‘배우자의 이혼강요’ 6.4%(35건), ‘경제갈등’ 4.9%(27건), ‘알콜중독’ 3.1%(17건),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2.0%(11건), ‘전과/복역’ 1.5%(8건), ‘도박’·‘종교갈등’·‘대화단절’ 각 1.3%(각 7건), ‘폭언’ 1.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별거 비율,

여성 2004년 8.5%, 2014년 10.0%, 2024년 16.8%

남성 2004년 5.6%, 2014년 15.8%,

2024년 30.2%로 크게 증가

남녀 모두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를 이유로 한 상담이 가장 많았다(여성 16.8%, 남성 30.2%). 또한 여성은 2004년 8.5%, 2014년 10.0%, 2024년 16.8%로, 남성은 2004년 5.6%, 2014년 15.8%, 2024년 30.2%로 지난 20년 간 남녀 모두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상담을 통해 보면 별거 초기에는 자녀 문제나 생활비 지급 문제 등으로 그나마 연락을 주고받는데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연락마저 끊겨 이혼을 진행하고자 해도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50대 여성)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심했다. 10년 전 남편은 돈을 벌겠다고 외국으로 갔는데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나도 직후 바로 아이와 함께 다른 나라로 출국해 당시 상황을 잘 몰랐는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외국으로 간 것이라고 했다. 나는 남편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연락조차 닿지 않는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 이제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

● 장기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60대 남성)

86년에 혼인했고 딸만 두 명을 낳았다. 사업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싸움이 잦아졌고,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내가 딸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찾아가 설득도 여러 번 해봤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도 살기가 급급하고 면목도 없어 점점 더 처가에 가지 못했고 그러면서 아예 왕래도 끊겼다. 따로 산 지 25년이 넘었다.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혼을 하고 싶다.

남녀 모두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를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이들도 많아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성격차이'를 이혼사유로 제시한 비율도 높았다(6호사유 중 여성 15.5%, 남성 27.5%). 또한 남녀 모두 2023년에 비해 비율이 증가하였다(여성 13.6%→15.5%, 남성 14.4%→27.5%). 성격차이는 사소한 생각 차이에서부터 근본적인 성향 차이까지 부부 불화의 총괄적인 개념으로 대부분 다른 항목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났다. 상담을 통해 보면, 결혼 전에는 자신과 다른 상대방의 성격에 호감을 가졌으나 결혼 후에는 그러한 차이가 다툼의 원인이 되어 갈등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 성격차이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50대 여성)

남편과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원한다. 남편은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만 해야 한다. 나와 아이들에게 독단적으로 자신의 방식만을 강요한다. 나도 사회생활을 잘하고 아이들도 공부를 잘한다. 그러나 나와 아이들의 의견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결혼 전에는 남편의 강단 있는 모습이 능력처럼 보여 좋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지나쳐 힘들다. 이혼하고 내 몫의 재산을 분할 받고 싶다.

● 성격차이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40대 남성)

나는 어려서 가난했기에 물건을 잘 못 버린다. 아내는 그런 내 생활방식을 매우 싫어했다. 심지어 본가에 있는 살림들도 다 낳았다며 명절에도 가기 싫어했다. 아내는 경제관념이 전혀 없다. 돈은 당연히 내가 벌여 와야 했고, 공공금 처리부터 채테크까지 모두 다 내 몫이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내게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해 나에게만 부양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했더니 장모와 아이들에게 내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고 나쁘게 말하였다. 더 이상은 나도 그런 아내와 살고 싶지 않다.

경제갈등으로 인한 이혼상담 비율 높아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경제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 상담 비율이 높았다(6호사유 중 여성 10.8%, 남성 4.9%). 또한, 여성은 '빚'(6호사유 중 4.3%)을 이유로 제시한 경우도 많았다. 상담을 통해 보면, 무리한 주식·코인투자, 사업실패, 과소비, 보증 등으로 부부 모두 신용불량 상태에 놓인 이들도 많았다. 이들은 배우자 명의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자신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는 등 돌려막기를 해왔는데 더 이상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호소해왔다.

● 경제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40대 여성)

남편은 사업을 했는데 사기를 당한 후 다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사기 가해자가 되었다. 그 건으로 합의금이 필요해 내가 대출을 받아 주었고, 모자란 돈은 시댁에서 해 주었다. 이후 남편이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아 결국 내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남편은 내가 회사 동료와 외도를 한다며 의심을 하였고 술에 빠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혼 후 아이들을 내가 키우고 싶다.

● **경제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40대 남성)

아내의 과소비로 인해 채무가 많다. 아내는 아이들과 매일 외식을 하고 옷도 수시로 산다. 한 달 카드 값만 천만 원 이상 나온다. 내 급여를 초과하는 카드 값이라 매번 양가 부모에게 손을 벌렸다. 그래도 모자라 대출을 받고 지인에게 빌리기도 하였다. 아내는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돈은 반드시 남편인 내가 모두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문제로 내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적도 있다. 집도 없고 월세 살이 중인데 아내는 변할 마음이 없다. 이제는 감당할 수 없어 정말 이혼해야 할 것 같다.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전혼자녀와의 갈등' 주장하는 이혼 많아져

배우자의 전혼자녀와의 갈등을 호소한 경우도 남녀 모두 2023년에 비해 증가하였다(여성 0.2%→0.7%, 남성 0.0%→0.2%). 상담을 통해 보면, 이혼이 늘면서 전혼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전혼자녀를 홀대하거나 상대방의 전혼자녀가 자신을 홀대할 때 혼인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자신의 전혼자녀가 미성년일 때에는 양육비 관련해서 갈등이 많았고, 상대의 자녀가 성년일 때에는 후에 있을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혼자녀와의 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50대 여성)

남편이 이혼을 요구 중이다. 남편 전처 소생 자녀와의 갈등 문제 때문이다. 전처 소생 아들이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그 문제로 아들이 왕래를 끊고 오지 않고 있다. 남편은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렸다. 그러면서 나를 원망하며 아들과 잘 지내기를 강요하고 괴롭혀왔다. 남편의 계속된 압박 때문에 내가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다. 더 이상은 나도 견디기가 힘들다.

● **전혼자녀와의 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60대 남성)

전혼자녀가 각각 있는 상태에서 아내와 재혼을 하였다. 아내는 늘 자신의 전혼자녀만 걱정하였고, 내 전혼자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내게 부동산이 있는데 아내와 아내의 전혼자녀는 내가 내 전혼자녀에게만 유리한 재산 처분행위를 할까봐 그것을 늘 감시하며 걱정해왔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사이가 나빠졌고 나도 더 이상은 이런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아 이혼하고 싶다.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알콜중독' 증가

기타사유인 6호사유 중 '알콜중독'의 비율이 남녀 모두 2023년에 비해 증가하였다(여성 1.3%→2.4%, 남성 0.0%→3.1%). 상담을 통해 보면, 배우자가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술을 가까이 하다 결과적으로 중독에 빠지게 되었는데 치료마저 거부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호소를 해왔다. 알콜중독은 중독자 자신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폭언, 기물파손, 폭행 등 여러 가지 문제 있는 행동들을 수반해 가족구성원 전체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가정해체까지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알콜중독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50대 여성)

남편은 평생을 술에 빠져 지냈다. 술 문제로 병원에 한 달간 입원을 한 적도 있다. 술을 마신 후에는 폭언과 폭행을 계속 해댔다. 얼마 전 참다 못해 경찰에 남편을 신고하였고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일주일만에 또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발견되어 119에서 연락이 왔다. 현재는 내가 집을 나와 있는 상태이다. 남편에게 집을 비워 달라 요구했는데 술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는다. 소송을 진행해도 법원에 제 때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다 필요 없고 이혼만 했으면 한다.

● 알콜중독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60대 남성)

아내의 알콜중독, 자해, 거짓말, 기물파손 등을 이유로 이혼하고자 한다. 아내는 병원에서 알콜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또한, 아내는 자해와 기물파손을 하기 전에 꼭 112와 119에 신고를 한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아내는 현재 행정입원 중이다. 아내는 이사를 해야 한다면 내게 돈을 받아갔는데 다 써버린 후 나 몰래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이런 사정들로 인해 현재는 남아 있는 돈이 거의 없다. 나는 이혼만 원한다.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시가와의 갈등' 증가

남녀 모두 2023년에 비해 6호사유 중 '시가와의 갈등'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여성 1.7%→1.8%, 남성 0%→0.4%). 시가와의 갈등 문제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며느리를 홀대하거나 학대하는 시부모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는데

데 근래에는 시부모를 무시하고 냉대하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남편과 시부모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내와 며느리는 부부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 결국 그 차이가 갈등을 유발하고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 시가와의 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30대 여성)

시집 식구들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 부부싸움이 일어나기만 하면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한다. 이후 시집 식구들은 무조건 내 탓을 한다. 그러면서 남편과 시집 식구들에게 맞추라고 강요한다. 결혼 기간 내내 이런 패턴으로 부부싸움을 했다. 한번은 남편이 술에 취해 귀가한 후 내게 또 싸움을 걸어왔는데 남편이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시누이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오기도 하였다. 다들 때 상황을 남편이 영상으로 찍으려고도 했는데 시누이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 같다. 이혼 후 내가 아이를 키웠으면 한다.

6호사유 중 비율 증가 항목(2023년 →2024년)

| 여성 | | | 남성 | | |
|---------------|----------|----------|---------------|---------|----------|
| 사유 | 2023년(%) | 2024년(%) | 사유 | 2023(%) | 2024년(%) |
| 경제갈등 | 9.3 | 10.8 | 거짓말 | - | 0.5 |
| 불성실한 생활 | 1.0 | 3.3 | 혼수시비 | - | 0.2 |
|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 1.2 | 3.6 | 사치/낭비/허영 | - | 0.2 |
| 성격차이 | 13.6 | 15.5 | 빚 | - | 0.7 |
| 성적 갈등 | 0.2 | 0.6 | 도박 | 0.2 | 1.3 |
| 정신병 | 1.0 | 2.2 | 전과/복역 | 0.5 | 1.5 |
| 의처증 | 0.7 | 1.7 |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 0.7 | 2.0 |
| 알콜중독 | 1.4 | 2.4 | 종교갈등 | 0.4 | 1.3 |
| 무시/모욕 | 1.4 | 1.5 | 성격차이 | 14.4 | 27.5 |
| 자녀학대 | 1.2 | 1.8 | 알콜중독 | - | 3.1 |
| 잡은 가출 | - | 0.2 | 대화단절 | 0.9 | 1.3 |
| 잡은 외박 | 0.2 | 0.5 | 시가와의 갈등 | - | 0.4 |
| 시가와의 갈등 | 1.7 | 1.8 | 전혼자녀와의 갈등 | - | 0.2 |
| 전혼자녀와의 갈등 | 0.2 | 0.7 | 동성애 | - | 0.2 |
| 배우자의 이혼강요 | 2.8 | 3.3 | | | |
| 고부갈등 | 0.1 | 0.3 | | | |
| 게임중독 | - | 0.1 | | | |

* 진한 글씨는 남녀 모두 증가한 항목임

● 시가와와 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60대 남성)

아내와 혼인한 지 20년이 넘었다. 내가 장남이어서 명절에는 우리 집에서 형제들이 모두 모여 다 같이 식사를 해왔는데 아내가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아내는 결혼 기간 내내 나를 무시하였고, 경제권을 다 행사하며 내게 수시로 잔소리를 해댔다. 그래도 참아왔다. 그런데 나는 그런 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그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혼을 원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노년 이혼상담 분석

이혼상담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연령별 분석 첫 해인 1995년에는 60대 이상이 여성 1.2%, 남성 2.8%로 매우 낮았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년 전인 2004년에는 여성 6.2%, 남성 8.4%, 10년 전인 2014년에는 여성 14.8%, 남성 26.1%로 나타났고, 2024년에는 더욱 증가해 여성 22.0%, 남성 43.6%를 기록하였다.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여성은 7.2%p, 남성은 17.5%p, 20년 전에 비해 여성은 15.8%p, 남성은 35.2%p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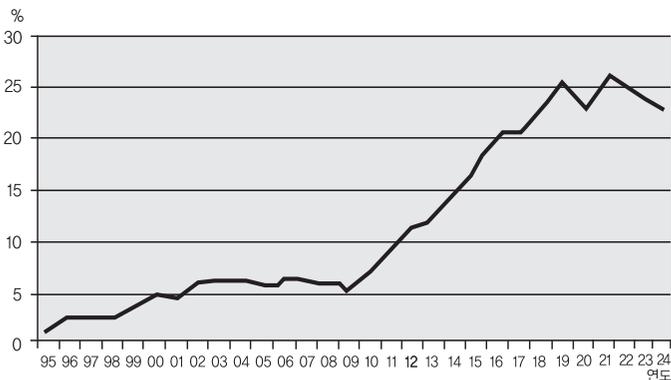
2024년도에 이혼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소를 방문한 60대 이상 여성은 총 891명이었고, 이들 중 60대는 642명, 70대는 210명, 80대 이상은 39명이었다. 또한, 60대 이상 남성은 총 441명이었고, 이들 중 60대는 293명, 70대는

60대 이상 남녀의 연도별 이혼상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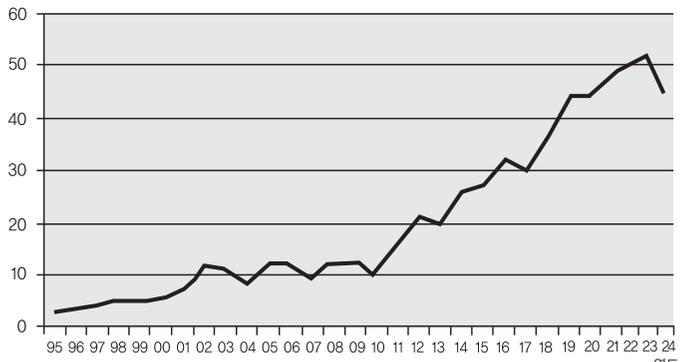
| | 여성 | 남성 |
|-------|---------------|-------------|
| 1995년 | 41명(1.2%) | 15명(2.8%) |
| 1996년 | 91명(2.4%) | 22명(3.6%) |
| 1997년 | 96명(2.5%) | 25명(4.0%) |
| 1998년 | 123명(2.7%) | 35명(4.6%) |
| 1999년 | 156명(3.5%) | 36명(4.8%) |
| 2000년 | 237명(4.9%) | 41명(5.2%) |
| 2001년 | 203명(4.5%) | 48명(7.7%) |
| 2002년 | 223명(5.8%) | 73명(11.6%) |
| 2003년 | 212명(6.2%) | 60명(10.7%) |
| 2004년 | 205명(6.2%) | 45명(8.4%) |
| 2005년 | 179명(5.8%) | 53명(12.5%) |
| 2006년 | 211명(6.1%) | 60명(11.4%) |
| 2007년 | 216명(6.0%) | 68명(9.0%) |
| 2008년 | 209명(5.8%) | 70명(12.4%) |
| 2009년 | 213명(5.5%) | 79명(12.5%) |
| 2010년 | 254명(7.0%) | 57명(10.5%) |
| 2011년 | 402명(9.2%) | 122명(15.0%) |
| 2012년 | 521명(11.4%) | 175명(21.0%) |
| 2013년 | 689명(12.4%) | 272명(20.1%) |
| 2014년 | 752명(14.8%) | 373명(26.1%) |
| 2015년 | 996명(18.1%) | 524명(27.2%) |
| 2016년 | 1,038명(20.7%) | 626명(31.9%) |
| 2017년 | 818명(21.1%) | 409명(30.4%) |
| 2018년 | 774명(23.5%) | 495명(36.3%) |
| 2019년 | 870명(25.3%) | 586명(43.5%) |
| 2020년 | 728명(22.3%) | 426명(43.5%) |
| 2021년 | 894명(25.7%) | 544명(47.7%) |
| 2022년 | 768명(24.3%) | 428명(50.1%) |
| 2023년 | 927명(23.1%) | 516명(51.5%) |
| 2024년 | 891명(22.0%) | 441명(43.6%) |

103명, 80대 이상은 45명이었다. 2023년도에 비해 80대 이상은 더욱 증가하였다(여성 20명→39명, 남성 37명→45명).

한편, 이혼상담을 받은 내담자 중 최고령자는 여성 89세, 남성 90세였다.



연도별 60대 이상 여성 이혼상담 비율



연도별 60대 이상 남성 이혼상담 비율

노년 여성,
 평생 맞고 살았는데 남편 폭력 계속 이어져
 나이 들어서도 가사 노동 강요, 은퇴도 없어
 젊어서 밖으로 돌던 남편, 은퇴 후 집안 일 사사건건 간섭

노년 남성,
 평생 일했는데 나이 들어서도 생활비 벌여오라 강요
 은퇴하자 쓸모 없는 사람 취급, 아내는 밖으로만 돌아
 가족 위해 살았는데 나이 들자 아내, 자녀가 모두 외면

이들이 내세운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60대와 70대는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6호(기타사유), 2호(남편의 가출) 순이었다. 기타사유인 6호사유는 60대와 70대 모두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이었다. 80대 이상은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경제갈등, 성격차이 순),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1호(남편의 외도) 순이었다.

이혼상담 사유로 60대와 70대 여성은 남편의 폭력을 1순위로 제시하였고, 80대 이상 여성도 기타 사유 다음으로 남편의 폭력을 제시해 노년층에서도 가정 내 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상담을 통해 보면, 혼인 초부터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경우가 많았으나 자녀들이 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젊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이혼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중에는 어린 자녀를 업고 상담소를 방문했었는데 용기가 없어 포기하고 살

다가 성장한 자녀의 도움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소를 재방문한 경우도 있었다.

80대 여성은 첫 번째 사유로 6호인 기타사유를 제시하였고, 60대와 70대에서는 기타 사유를 두 번째로 꼽았다. 기타 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성격차이와 경제갈등 등이 있었다. 노년 여성들은 나이 들어서도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가사 노동을 강요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주지 않아 은퇴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젊어서는 밖으로 돌던 남편이 은퇴 후에는 집안에만 머물며 사사건건 간섭하고 지적해 부부 간 갈등이 더 컸다고 호소해왔다.

남성 노년층이 제시한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60대는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알콜중독 순), 2호(아내의 가출), 3호(아내의 폭력 등 부당대우) 순이었다. 70대와 80대는 6호(기타사유), 2호(아내의 가출), 1호(아내의 폭력 등 부당대우) 순이었는데 기타사유인 6호사유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70대는 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80대 이상은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60대, 70대, 80대 이상 남성 모두 6호(기타 사유)를 1순위로 제시하였고,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60대, 70대, 80대 이상 남성 모두 아내의 가출을 2순위로 제시하여 장기간의 별거와 아내의 가출이

| | 여성 이혼사유 순위별 | 남성 이혼사유 순위별 |
|--------|---------------------------|--------------------------------|
| 60대 |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알콜중독 순) |
| |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 2호(아내의 가출) |
| | 2호(남편의 가출) | 3호(아내의 폭력 등 부당대우) |
| 70대 |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
| |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 2호(아내의 가출) |
| | 2호(남편의 가출) | 1호(아내의 외도) |
| 80대 이상 | 6호(기타-장기별거, 경제갈등, 성격차이 순) |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
| |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 2호(아내의 가출) |
| | 1호(남편의 외도) | 1호(아내의 외도) |

노년 남성층에서 주된 이혼 사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담을 통해 보면, 다양한 사유로 별거하면서 서로 연락을 끊은 채 사실상 이혼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아내와 연락을 끊은 경우 자녀들과도 단절된 경우가 많았는데 경제적으로 곤궁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늦게라도 법적 관계를 정리하려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 노년 남성들도 아내와의 성격차이, 경제갈등 등을 이혼사유로 많이 제시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평생 일해 뒷바라지해왔는데 나이 들어서도 계속해서 생활비를 벌여오라 강요해 힘이 든다고 호소해왔다. 또한 은퇴하자 자신을 쓸모 없는 사람 취급하였고, 아내가 밖으로만 돌아 대화조차 시도하기 어렵고 소외되고 고립되어 이혼을 원해도 재산을 분할하면 생활이 더 어려워져 결단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 6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결혼 기간 내내 남편 폭력에 시달렸다. 아이들이 공부를 끝내고 결혼할 때까지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으나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 했다. 남들이 알까봐 폭력이 있어도 신고를 못했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폭력을 말리던 아들이 참지 못해 울분을 터뜨렸고 그대로 있다가는 큰 일이 날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였다. 병원 진단서도 많고 멍든 사진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고 싶다.

● 6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아내와 별거한 지 10년이 넘었다. 내가 원한 것은 아니었고 아내가 나가라고 쫓아내 결국 나오게 되었다. 나는 주변에 친구가 많았고 그들 중에는 여성도 있었는데 아내는 매번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의심했었다. 나와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계속 보냈고 아이들이 직장생활을 하게 된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목돈을 보내주곤 하였다. 그런데도 내가 수술을 받게 되어 아내에게 연락했을 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제는 이혼하고 싶다.

● 7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하고자 한다. 남편은 평생 나를 의심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전화를 하다 지나가는 남자 목소리만 들려도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폭행하였다. 이번에는 칼을 내 목에 들이댔고 내가 그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을 크게 다쳤다. 내가 경찰에 신고해 남편은 현재 구치소에 있다.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 1억원밖에 없다. 그동안 자녀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이혼하고 싶다.

● 7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아내가 5년 전 집을 나가 다른 곳에 살고 있다. 친척 집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알려주지 않는다. 별거 이후에는 집에 한 번 왔을 뿐이다. 그런데 얼마 전 내게 전화를 걸어와 월세방을 보증금을 줄테니 나더러 그 돈만 받고 집을 나가라 하였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공동명의로 5억원 정도 나간다. 터무니 없는 소리라 그냥 끊어버렸는데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하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제대로 재산을 분할하고 싶다.

● 8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남편은 평생 동안 돈을 벌지 않았다. 그동안 친정에서 보태주고 내가 막일을 해 겨우겨우 생활해왔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친정에서 준 돈으로 겨우 마련한 것이다. 신혼 초에도 친정에서 집을 사주었는데 남편이 내게 말도 없이 그 집을 처분했었다. 남편은 외도도 일삼았는데 지금도 내가 집을 없으면 다른 여자들을 집으로 데려온다. 내가 이혼을 요구했더니 내게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주어야 하는가?

● 8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40년 전 재혼하였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다. 번 돈은 모두 아내에게 주었는데 돈이 얼마 있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 집도 아내 명의로 샀었는데 팔아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려 주지도 않고 현재 전세도 아내 명의로인데 보증금이 얼마 들어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는다. 내가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데 아내는 그것을 빌미로 내게 이사를 가야 한다며 돈을 내놓으라고 할 뿐이다. 내가 화를 내면 가정폭력으로 고소한다고 한다.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 이혼하고 싶다.

기타 면접상담 분석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상담 증가

2023년에 비해 이혼상담이 증가(23.6%→24.0%)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1.8%→2.3%), 양육비(5.6%→6.7%), 면접교섭권(0.5%→0.7%)에 대한 상담도 모두 증가하였다. 부부가 혼인 중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별도로 정해야 하는데 이들은 친권, 양육권자 지정 시 고려되는 기준 즉 자녀의 성별, 연령, 의사,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등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문의해왔다. 또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비양육친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데 적정 액수와 지급 방식,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해왔다. 면접교섭 관련해서는 양육친이나 자녀가 거부할 경우 면접교섭을 늦추거나 배제할 수 있는지, 이혼 후 자녀나 비양육친의 거부로 자녀를 만나지 못한 경우 면접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해왔다.

유언 및 상속에 대한 상담 많고 증가

면접상담 중 유언·상속에 대한 상담이 8.6%(1,822건)를

차지하였고 2023년에 비해 증가하였다(7.3%→8.6%). 유언 관련해서는 자신이 사망 후 받게 될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과 자필증서, 유언공증 등 그 분배 비율을 미리 정하는 유언방식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그 외 망자가 남긴 유언증서의 검인방식 및 이후 절차 등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상속 관련해서는 망자가 남긴 재산보다는 채무에 대한 처리 방식을 묻는 경우가 더 많았다. 즉, 망자가 빚을 남겼을 경우 상속인들은 승인 또는 포기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망자의 채무를 조회하는 방식,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해왔다.

성년후견에 대한 상담 증가

2023년에 비해 성년후견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1.7%→2.0%). 내담자들은 고령이나 장애, 질병 등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어려운 부모, 자녀, 형제의 후견인이 되고자 문의해왔는데 은행, 보험사, 병원 등 각 기관에서 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때 피성년후견인이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청구권자, 후견인 자격, 청구서 작성 방법, 심판절차 및 소요기간 등에 대해 다양하게 문의해왔다. 한편,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후견사무보고와 권한초과행위 허가 등에 대한 부담으로 후견인을 사임하고자 문의해 오는 이들도 있었다.

개인파산 및 면책에 대한 상담 증가

면접상담 중 개인파산 및 면책에 대한 상담이 2.9%(617건)를 차지하였고 2023년에 비해 비율이 증가하였다(2.8%→2.9%).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은 0.2%였고 건수로는 45건이었다. 상담소에서는 경제적 위기를 이유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막고자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지역자활센터 등의 시설 종사자와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파산 면책 교육 및 상담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아울러 상담에 그치지 않고 2024년 한 해 동안 총 128건의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절차를 무료로 진행해 이들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2024년 면접상담 사건내용별 분석표

| 사건내용 | 성별 | 여 성 | | 남 성 | | 합 계 | |
|---------------------------|----------|--------|--------|--------|--------|--------|--------|
| | | 사건수(명) | 백분율(%) | 사건수(명) | 백분율(%) | 사건수(명) | 백분율(%) |
| 가 사 20,010건 (94.8%) | 남녀관계 | 20 | 0.2 | 61 | 0.6 | 81 | 0.4 |
| | 파 혼 | 3 | 0.0 | - | - | 3 | 0.0 |
| | 부부갈등 | 1,519 | 13.0 | 4,087 | 43.5 | 5,606 | 26.6 |
| | 이 혼 | 4,054 | 34.7 | 1,011 | 10.8 | 5,065 | 24.0 |
| | 사실혼해소 | 132 | 1.1 | 45 | 0.5 | 177 | 0.8 |
| | 위자료·재산분할 | 183 | 1.6 | 87 | 0.9 | 270 | 1.3 |
| | 친권·양육권 | 398 | 3.4 | 88 | 0.9 | 486 | 2.3 |
| | 양육비 | 1,103 | 9.4 | 306 | 3.3 | 1,409 | 6.7 |
| | 면접교섭권 | 103 | 0.9 | 43 | 0.5 | 146 | 0.7 |
| | 인 지 | 149 | 1.3 | 12 | 0.1 | 161 | 0.8 |
| | 친생부인 | 39 | 0.3 | 28 | 0.3 | 67 | 0.3 |
| | 친생자관계존부 | 241 | 2.1 | 117 | 1.2 | 358 | 1.7 |
| | 입양 | 67 | 0.6 | 41 | 0.4 | 108 | 0.5 |
| | 파양 | 20 | 0.2 | 8 | 0.1 | 28 | 0.1 |
| | 친양자 | 23 | 0.2 | 13 | 0.1 | 36 | 0.2 |
| | 혼인무효·취소 | 41 | 0.4 | 24 | 0.3 | 65 | 0.3 |
| | 이혼무효·취소 | 4 | 0.0 | 3 | 0.0 | 7 | 0.0 |
| | 부양관계 | 41 | 0.4 | 19 | 0.2 | 60 | 0.3 |
| | 유언·상속 | 986 | 8.4 | 836 | 8.9 | 1,822 | 8.6 |
| | 가족관계등록부 | 271 | 2.3 | 250 | 2.7 | 521 | 2.5 |
| | 성변경 | 142 | 1.2 | 72 | 0.8 | 214 | 1.0 |
| | 개명 | 57 | 0.5 | 36 | 0.4 | 93 | 0.4 |
| | 미성년후견 | 297 | 2.5 | 97 | 1.0 | 394 | 1.9 |
| 성년후견 | 223 | 1.9 | 192 | 2.0 | 415 | 2.0 | |
| 가사절차 | 224 | 1.9 | 220 | 2.3 | 444 | 2.1 | |
| 기타 | 824 | 7.0 | 1,150 | 12.2 | 1,974 | 9.4 | |
| 가 사 20,010건 (94.8%) | 임대차 | 14 | 0.1 | 11 | 0.1 | 25 | 0.1 |
| | 부동산 | 9 | 0.1 | 10 | 0.1 | 19 | 0.1 |
| | 채권·채무 | 49 | 0.4 | 27 | 0.3 | 76 | 0.4 |
| | 파산 | 222 | 1.9 | 395 | 4.2 | 617 | 2.9 |
| | 개인회생 | 32 | 0.3 | 13 | 0.1 | 45 | 0.2 |
| | 민사절차 | 6 | 0.1 | 5 | 0.1 | 11 | 0.1 |
| | 민사기타 | 82 | 0.7 | 44 | 0.5 | 126 | 0.6 |
| 형 사 171건 (0.8%) | 혼인빙자간음 | - | - | - | - | - | - |
| | 간 통 | - | - | - | - | - | - |
| | 성폭행 | 2 | 0.0 | 3 | 0.0 | 5 | 0.0 |
| | 성매매 | - | - | - | - | - | - |
| | 형사절차 | 22 | 0.2 | 11 | 0.1 | 33 | 0.2 |
| | 형사기타 | 97 | 0.8 | 36 | 0.4 | 133 | 0.6 |
| 합 계 | | 11,699 | 100 | 9,401 | 100 | 21,100 | 100 |

김진영 상담위원



특집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년도 상담통계 | 다문화가정 영어 법률상담

2024년도 다문화가정 영어 법률상담 통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영어상담은 본소 영어상담 자원봉사단에 가입한 변호사가 면접상담을, 본소 상담위원이 인터넷상담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2024년에 진행한 영어법률상담은 총 11건이었는데, 모두 인터넷상담으로 진행됐다.

인의 자문 사건이 많았던 것을 꼽을 수 있다. 외국 소재 법인이 한국인 주주 사망으로 한국 상속법에 대하여 문의한 사건, 외국 소재 법무법인에서 한국 상속법 규정 조사 중의 문사항을 문의한 사건 등이 있었다. 상담내용은 상속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인 남성과 혼인한 외국 국적 여성의 이혼 관련 상담이 다음으로 많았다. 2024년에 진행된 영어법률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년에 진행한 영어상담의 특징으로는 외국 주재 법

| | 상담일 | 신청인 | | 상대방 | | 사건분류 |
|----|--------|------|------|-----|----|------------|
| | | 성별 | 국적 | 성별 | 국적 | |
| 1 | 5. 3. | 남성 | 프랑스 | | | 가사/상속 |
| 2 | 6. 7. | 여성 | 미국 | | | 가사/상속 |
| 3 | 6. 14. | (법인) | 폴란드 | | | 가사/상속 |
| 4 | 7. 1. | (법인) | 베트남 | | | 가사/상속 |
| 5 | 7. 5. | (법인) | 베트남 | | | 가사/상속 |
| 6 | 7. 8. | (법인) | 베트남 | | | 가사/상속 |
| 7 | 7. 15. | (법인) | 베트남 | | | 가사/상속 |
| 8 | 7. 17. | 여성 | 프랑스 | 남성 | 한국 | 가사/재산분할 |
| 9 | 8. 16. | 여성 | 싱가포르 | 남성 | 한국 | 가사/이혼/1호 |
| 10 | 8. 28. | 여성 | 미상 | 남성 | 한국 | 형사/폭행 |
| 11 | 9. 13. | 여성 | 프랑스 | 남성 | 한국 | 가사/이혼/장기별거 |

<사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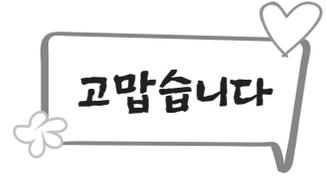
저는 외국 법률 전문가로 한국의 상속 규정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 절차에 관하여 조사하던 중 다음 사항에 관한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협의를 마치면 협의서를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까? 상속인은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합니까? 또는 공동 상속인이 작성하여 공증한 협의서가 있는 경우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례2>

저는 외국 국적 여성으로 한국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는 2세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는 전업주부인 제가 주양육자로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저는 배우자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저는 본국으로 돌아왔으며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할 경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였는데, 이는 남편이 혼인하기 전에 마련한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혼인 생활 중 남편이 범한 잘못에 대하여 정신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제가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상담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간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이혼, 상속 등 법률문제에 대해서 본소의 상담창구가 진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권지연 상담위원



2025년 2월 자원봉사자

• 야간상담을 해주신

김소이,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 대학생 자원봉사

서채영, 최다운, 손재원, 조민규, 조민주, 권예지, 서현진, 신재원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박인환, 최문원, 이현혜, 천정환 님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특집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4년도 소송구조 통계

2024년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 통계

I. 2024년 소송구조 통계

1. 전체 소송구조 건수 및 주요 내용

2024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진행한 소송구조 사건은 모두 1,085건으로 2023년 1,106건에 비해 21건 감소하였다. 이 중 본소가 진행된 것이 484건(44.6%), 전국업무협력기관의 연계를 통해 진행된 것이 601건(55.4%)이었다. 소송구조 건수의 감소 이유는 정부의 본소 소송구조 예산에 대한 감액에서 찾을 수 있다. 통상 소송구조 관련 예산은 소송구조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9월 내지 10월 경 대부분 소진되고 있는데 반하여, 정부의 소송구조예산지원은 매년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법적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의 인권과 복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결과를 빚고 있어 정부의 소송구조 예산의 증액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2024년에 진행한 소송구조사건 1,085건 중 가사사건이 940건으로 86.7%를 차지하여 민·형사사건(145건, 13.3%)에 비하여 6배 이상 많았다(이하 표1 참조). 이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1956년 창립 이래 가사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를 가진 명실상부한 가사전문기관으로서 어려운 가정

있는 곳에 늘 함께 했기 때문이다.

가사사건 이외의 민사사건(143건)은 개인파산 및 면책과 개인회생 사건이 136건으로 저소득·취약계층, 노숙인들의 개인신용회복을 위한 소송구조가 대부분이었다. 그 밖에 형사사건 2건은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하자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과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고소대리건이었다.

가사사건(940건) 중 이혼 등(이혼 및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380건, 35.0%)이 가장 많았고, 접근금지, 친권자 지정, 양육비 등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사건(170건, 15.7%),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청구사건 및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 및 강제집행 신청사건(130건, 12.0%)이 뒤를 이었다.

주로 위탁가정에서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구하는 미성년후견 사건은 81건(7.5%)이었고, 대부분 이혼 관련 사건에서 진행되는 보전처분인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은 45건(4.1%)이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나 변경 등을 원하는 양육친권에 관한 사건은 39건(3.6%),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록이 실제 관계와 달라 진실에 부합하게 정정을 구하는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사건은 29건(2.7%) 등이었다.

〈표1. 2024년 전체 소송구조 사건별 분류〉

| 항목 | 구분 | 빈도(건) | 비율(%) |
|------------------------|------------------------|---------|-------|
| 가사 (940건, 86.7%) | 이혼 | 380 | 35.0 |
| | 사실혼해소 | 3 | 0.3 |
| | 위자료/재산분할 | 5 | 0.4 |
| | 양육친권 | 39 | 3.6 |
| | 양육비 | 130 | 12.0 |
| | 면접교섭 | 9 | 0.8 |
| | 성년후견 | 2 | 0.2 |
| | 미성년후견 | 81 | 7.5 |
| | 인지 | 13 | 1.2 |
| | 친생부인 | 3 | 0.3 |
| | 친생자존부 | 16 | 1.5 |
| | 입양/친양자입양 | 2 | 0.2 |
| | 파양 | 2 | 0.2 |
| | 유언/상속 | 3 | 0.3 |
| | 혼인무효 | 1 | 0.1 |
| | 가족관계등록부 | 29 | 2.7 |
| | 가압류/가처분 | 45 | 4.1 |
| | 사전처분 | 170 | 15.7 |
| | 가사기타 | 7 | 0.6 |
| | 민사 (143건, 13.1%) | 개인파산/면책 | 127 |
| 개인회생 | | 9 | 0.8 |
| 부동산 | | 1 | 0.1 |
| 민사기타 | | 6 | 0.5 |
| 형사 (2건, 0.2%) | 형사기타 | 2 | 0.2 |
| | 계 | 1,085 | 100.0 |

2. 전체 소송구조 결과

2024년에 진행한 사건 1,085건 중 2024년 12월 말까지 414건(38.2%)의 사건이 종결되었다. 승소율은 97.8%로 대부분의 사건이 승소로 종결되어 높은 승소율을 보였다. 한편 가사사건의 특성상 소송 진행 중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을 하거나 상황변화로 마음을 바꾼 경우 또는 부부간의 화해로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경우와 그리고 변호사에 의한 조정 및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의

뢰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소 제기 후 취하로 종결된 경우 등이 45건 있었다.

〈표2. 2024년 전체 소송구조 결과〉

| 구분 | 빈도(건) | 비율(%) | 승소율* 97.8(%) | | |
|-----|-------|-------|--------------|-----------|------------|
| 종결 | 414 | 38.2 | 종결사건 414(건) | | |
| 진행중 | 671 | 61.8 | 승소 | 패소, 각하 | 기타, 소취하 |
| 계 | 1,085 | 100.0 | 361 | 8 | 45 |

* 승소율: 승소/(승소+패소, 각하)(2024. 12. 31. 기준)

3. 2024년 본소 소송구조 통계

전체 소송구조사건 중 본소 소송구조사건을 별도로 정리해 보면, 본소 소송구조사건은 484건이었다. 본소 소송구조사건은 전국업무협력기관 연계사건이 포함된 전체 소송구조사건에 비하여 양육비, 미성년후견, 개인파산 및 면책 등의 사건의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이는 본소에서의 양육비, 미성년후견, 개인파산 및 면책 등의 사건을 특화하여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소 소송구조 사건별 분류를 보면 가사사건이 73.3%(355건), 민사사건이 26.5%(128건)을 차지하였다. 가사사건 중에서는 이혼 20.7%(100건), 미성년후견 16.3%(79건), 양육비 15.3%(74건)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고 민사사건에서는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이 121건으로 전체의 25.0%를 차지하였다.

2023년에 비해 양육친권(11건, 2.4%→17건, 3.5%), 미성년후견(70건, 15.3%→79건, 16.3%) 사건이 소폭 증가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 사건은 2023년 15건(3.3%)에서 2024년 29건(6.0%)으로 약 두 배 증가하였다. 이는 본소의 대검찰청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자 변경, 친권상실, 미성년후견 사건 및 출생신고 미비 아동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 등 사건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3. 2024년 본소 소송구조 사건별 분류〉

| 항목 | 구분 | 빈도(건) | 비율(%) |
|------------------------|----------|-------|-------|
| 가사 (355건, 73.3%) | 이혼 | 100 | 20.7 |
| | 사실혼해소 | 1 | 0.2 |
| | 위자료/재산분할 | 2 | 0.4 |
| | 양육친권 | 17 | 3.5 |
| | 양육비 | 74 | 15.3 |
| | 면접교섭 | 3 | 0.6 |
| | 성년후견 | 2 | 0.4 |
| | 미성년후견 | 79 | 16.3 |
| | 인지 | 9 | 1.9 |
| | 친생부인 | 3 | 0.6 |
| | 친생자존부 | 11 | 2.3 |
| | 입양/친양자입양 | 2 | 0.4 |
| | 파양 | 0 | 0.0 |
| | 유언/상속 | 2 | 0.4 |
| | 혼인무효 | 1 | 0.2 |
| | 가족관계등록부 | 29 | 6.0 |
| | 가압류/가처분 | 5 | 1.0 |
| | 사전처분 | 10 | 2.1 |
| | 가사기타 | 5 | 1.0 |
| 민사 (128건, 26.5%) | 개인파산/면책 | 121 | 25.0 |
| | 개인회생 | 7 | 1.5 |
| | 부동산 | 0 | 0.0 |
| | 민사기타 | 0 | 0.0 |
| 형사 (1건, 0.2%) | 형사기타 | 1 | 0.2 |
| 계 | 484 | 100.0 | |

4. 2024년 본소 소송구조 결과

2024년에 진행한 사건 484건 중 2024년 12월 말까지 299건(61.8%)의 사건이 종결되었고, 185건(38.2%)은 진행 중이다. 승소율은 98.2%로 대부분의 사건이 승소로 종결되었다.

〈표4. 2024년 본소 소송구조 결과〉

| 구분 | 빈도(건) | 비율(%) | 승소율* 98.2(%) | | |
|-----|-------|-------|--------------|-----------|------------|
| 종결 | 299 | 61.8 | 종결사건 299(건) | | |
| 진행중 | 185 | 38.2 | 승소 | 패소, 각하 | 기타, 소취하 |
| 계 | 484 | 100.0 | 266 | 5 | 28 |

* 승소율: 승소/(승소+패소, 각하)(2024. 12. 31. 기준)

II. 결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소송구조사업은 다양한 가사사건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그리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의 프로젝트 법률구조 사업 지원과 아동권리보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취약·소외계층,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소송구조와 양육비이행 확보, 위탁아동의 미성년 후견인 선임, 개인파산 및 면책 등의 사건을 특화하여 소송구조를 진행하고 있다. 상담소의 소송구조는 본소 소속변호사들과 전국 백인변호사단 가입 변호사(2025년 1월 현재 566명)들이 수행하고 있다.

한편 상담소에서는 종전에 지부 관계였던 전국 18개 지역의 기관들과 ‘전국업무협약기관 협약’을 체결하여 본소와의 연계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리적 격차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방에서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구조를 적극적으로 지원·운영하고 있다. 상담소에서는 또한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 다문화가족상담센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터), 비혼모시설(애란한가족네트워크 등), 노숙인보호시설, 법률상담터 등에서 연계된 피해자의 소송구조사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3년 대검찰청과 체결한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필요한 가사 관련 사건에 대한 사안별 맞춤형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가족복리를 기할 수 있도록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공서 및 지역사회 단체들과 함께 구조가 필요한 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면접상담뿐만 아니라 전화, 사이버, 서신, 화상, 출장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담창구를 열어 내담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가사문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에 터 잡은 인지도와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1,085건의 소송구조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본소에 대한 소송구조 관련 예산지원은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어 정부가 국민의 권익보호에 대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소가 국민들의 소송구조 요청에 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인권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2024년 소송구조 참여 백인변호사단 명단

(직함 생략, 가나다 순)

1. 본소 사건

강종협(김포), 권영심(대전), 김경수(서울), 김균률(인천), 김남형(안산), 김동원(서울), 김상군(서울), 김상훈(목포), 김선영(안양), 김선옥(부산), 김세환(광주), 김소이(서울), 김영은(수원), 김재운(부산), 김재홍(부산), 김진아(서울), 김학모(여주), 김학수(전주), 남호진(대구), 문석빈(인천), 문형승(안산), 박다혜(서울), 박미혜(창원), 박상혁(논산), 박성미(군산), 박수열(서울), 박시형(서울), 박은정(서울), 배우미(인천), 배준영(광주), 서지연(서울), 성기배(충주), 성수민(부산), 소정임(부천), 손명숙(창원), 손수정(성남), 송현승(순천), 신은숙(서울), 안미연(서울), 안혜림(대구), 오수진(광주), 오유경(창원), 오현희(서울), 옥치돈(거제), 원의림(서울), 윤길현(부산), 이동규(서울), 이수연(서울), 이승익(대구), 이연주(전주), 이영임(서울), 이원호(남양주), 이윤선(수원), 이주현(성남), 이찬호(부산), 임소진(원주), 장문수(울산), 장성민(서울), 정민영(서울), 정상수(서울),

정연구(상주), 정창래(남양주), 조새미(목포), 조영은(춘천), 천정환(서울), 최국신(광주), 최낙균(제주), 최원영(익산), 황미옥(서울)

● 본소 소속 변호사

김민선, 박슬기

2. 전국업무협력기관 사건

강길복(평택), 강 미(전주), 공영서(수원), 김균률(인천), 김도형(순천), 김병철(청주), 김승구(성남), 김승유(부산), 김승혜(서울), 김유미(인천), 김유주(서울), 김지은(울산), 김 창(목포), 김택빈(수원), 김학수(전주), 김현성(천안), 김혜연(서울), 김효경(남양주), 김효정(수원), 두완수(군산), 류기정(진주), 문대근(성남), 문석빈(인천), 민경식(인천), 민태식(창원), 박라영(경주), 박성미(군산), 박인옥(창원), 박재상(청주), 박재성(울산), 박종우(제천), 박지훈(수원), 박진호(인천), 박현수(대구), 박현혜(대전), 방연지(서울), 배우미(인천), 손명숙(창원), 손수정(성남), 송현승(순천), 신현일(순천), 심요섭(정읍), 여지은(서울), 오유경(창원), 우관수(익산), 윤수빈(안동), 이광택(인천), 이 봄(서울), 이상훈(수원), 이수호(인천), 이승익(대구), 이영주(익산), 이원기(수원), 이윤선(수원), 이재영(창원), 이재호(창원), 이준혁(서울), 이창림(울산), 임은지(평택), 임현정(청주), 장경아(서울), 장수혁(서울), 장진호(제천), 장진호(진주), 전용우(동해), 전태우(수원), 전해경(울산), 정경일(해남), 정영근(인천), 정호성(울산), 조새미(목포), 조혜인(서울), 최덕문(익산), 최미리(창원), 최용준(전주), 최지희(수원), 하정미(부천), 한소영(순천), 한지영(전주), 허선무(창원), 허정택(성남), 황은하(서울)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복미영 상담위원

신민법 제정과 1차 가족법 개정 1948~1962

제2장 민법 초안에 드러난 불평등적 요소 (3)

2. 보수세력과의 대립-국회 공청회(1)

민법 중 친족상속편의 심의요강과 수정안을 놓고 각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헌법 이념대로 남녀평등한 입법을 요구하는 여성계와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인 단체는 다른 유도회였다.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여성단체들에서 남녀 동권의 구현을 주장하던 초기부터 유도회는 종래의 유교 도덕관의 입장에서 “한국 고유의 미풍양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계의 남녀평등 입법요지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자세를 취했다. 예를 들면, 호주제도를 없앤다거나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은 부계혈통 중심의 가부장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동성동본 혼인’이란 “인륜의 껍질을 쓴 인간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금수의 행위”라는 폭언까지 일삼았다. 시종일관 이러한 입장으로 무장한 유도회 서울 지부는 소위원회가 심의요강을 결정하여 법사위에 제출하자 “친족 범위의 축소와 동성동본 혼인 용인 등은 윤리관의 파멸”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유도회는 “그 요강이 비록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되거나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것은 아니지만 그 요강 중 우리의

미풍양속과 도의감을 좌절시키고 유물관에 현혹된 느낌이 있어 국가민족적 견지에서 통분을 금치 못하여 소신을 펴 력하여 조속한 시정을 회구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도 회 연산 지부에서는 부모에게 혼인동의권을 주라고 주장하 기도 했다.

이렇듯 유림 세력의 완강한 반대 압력은 정부와 자유당 으로 하여금 친족상속편을 민주적으로 입법화하는 데 소극 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정부 측의 소극적 태 도는 급기야 여성계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고 말 았다. 법사위의 심의요강이나 소위원회의 수정안도 여성계 의 의지를 충족시킬 수 없는 부족한 것이었는데, 거기서 다 시 더 후퇴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니 좌절할 수밖에 없었 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단체들은 공청회를 통해 유림과의 정면 대결로 나갈 수밖에 없는 지점에 서게 되었다. 사실상 새 민법 초안 중 특히 친족상속편의 경우 개인의 존엄성과 평등을 바탕으로 한 근대 자유사상과 유교의 가부장적 충 효사상을 바탕으로 한 우리 전통 풍습을 조화시켜 나가기 엔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 공청회는 각계각층 의 의견을 듣는다는 명목으로 국회 법사위가 주최한 것이 었다.

편집부

*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이 1948년 9월 15일 구성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마련한 ‘민법 중 친족상속편’의 남녀차별적 성향을 지적하고 이 의 개정을 위해 나선 데 이어 상담소는 창설 당시부터 가족법 개정운동을 주도하여 동성동본 금혼 폐지와 호주제 폐지를 관철하였다. 이 러한 가족법 개정운동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률구조 사업과 나란히 상담소의 주요한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창립 반세 기를 맞은 상담소는 기존의 ‘상담소 30년사’와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를 정비하기로 하고 2009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와 『가족법개정운동 60년사』를 펴낸 바 있다.

앞서 <가정상담>에 상담소 50년사를 요약 게재한 데 이어 앞으로 상담소가 주도하여 우리나라의 주요한 역사가 된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를 연재한다.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 있어도 바라는 바가 같아 합심하고 해결의 의지 보여

2021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교육강좌 4회(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실시), 음주문제상담 6회(화상으로 실시), 집단상담 4회(화상으로 실시)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5회, 음주문제상담 5회(화상으로 실시), 자조모임 4회(화상으로 실시), 교육강좌 1회(화상으로 실시)

부부상담 6회 등 총 40회

상담기간

2022. 2. 7. ~ 2022. 8. 17.

상담진행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지 7년이 경과하였고, 부부 사이에 1남(7세)이 있다. 행위자는 2021년 7월 사건당일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고부갈등 및 이혼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명치 쪽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되었다.

피해자는 시모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폭언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행위자가 기물 파손, 폭력, 자해 등을 하여 갈등이 있었다고 하였다. 결혼시에는 몰랐으나 행위자는 20세부터 음주문제가 있었

고 지금도 정신과에서 음주 및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다. 피해자는 본 사건 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별거하였다. 2021년 8월 행위자의 이혼 제의로 부부는 협의이혼신청을 하였고 3개월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 의사확인기일에 만났으나 행위자가 재결합을 제안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였다. 피해자가 재결합에 동의한 이유는 행위자가 아들에게는 폭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만 피해자와 아들은 행위자가 새 직장을 구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시모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시부모에 대한 도리를 강요하지 않기를 바랐다.

재결합 후 피해자는 부부관계가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행위자가 바라는 시부모와의 화해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고 추석 즈음 그 바람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하였다. 부부는 갈등요인 해결을 위하여 고민하고 서로 바라는 바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기간 중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기’를, 피해자는 ‘행위자 칭찬하기’를 실천하기로 하였다.

부부 모두 사건 당시 관계만족도는 마이너스 점수였지만, 상담 종결 시점에는 피해자는 10점 만점에 5점, 행위자는 6~7점으로 평가하였다. 좋아진 점으로 피해자는 부부대화가 개선되었고 행위자가 이전과 달리 화를 낸 후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며 감정조절을 하는 점을 꼽았으며, 행위자는 명령조 단답형이었던 부부대화가 개선된 점, 자신이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마음이 된 것을 꼽았다. 향후 보완점으로 피해자는 행위자 퇴근 후나 주말에 부부간 대화를 더 하기를, 행위자는 부부대화 활발, 가사 및 양육에의 동참을 꼽았다. 부부는 이혼을 고려하였으나 재결합하였고, 갈등요인이었던 시가와 화해 문제가 남아있지만 피해자가 생각

과 마음을 정리하여 시가 방문일을 결정하기로 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1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5회, 교육강좌 2회(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실시), 음주문제상담 6회(화상으로 실시), 집단상담 2회(화상으로 실시) 등

총 15회

상담기간

2022. 2. 21. ~ 2022. 8. 22.

상담진행

행위자는 피해자(둘째 딸, 34세)의 부친이다. 행위자는 배우자 및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고, 첫째 딸은 결혼하여 분가하였다.

피해자는 명문대 화공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였다가 포기하고 5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웹툰 작가

를 지망하며 원고도 작성하고 노력중이다. 공격성은 없으나 잘 빠치는 등 예민하여 행위자 부부가 피해자의 눈치를 보면서 무엇이든 지원할 생각으로 지내왔다. 2021년 7월 사건 당일 행위자는 지인의 부고를 인터넷으로 알리는 것을 피해자에게 부탁하였는데 거절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발이 있는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되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는 화해하였고 행위자는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피해자는 이전에 상담을 받은 적도 있는데 정신적 문제는 없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성실하게 상담에 참여하였다. 피해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사건당시에도 사건이 발생한 30분 정도만 10점 만점에 3점 정도로 낮았을 뿐, 그 외의 시간은 8점 정도였으며 상담 종결시에도 8점 정도로 무난하다고 평가하였다. 행위자는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의 여러 형태에 대하여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고 기물을 파손한 본인의 행동이 가정폭력에 해당하며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수용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다짐하였다. 피해자가 진로 목표를 정하고 그 과정을 밟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부부가 합심하여 지원할 것을 다짐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025년 2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진행 현황 〉

| 구분 | 프로그램명 | 날짜 | 참석인원 | 주제 | 강사 |
|-------------------------|----------------|-------------|-----------------------|----------------------|------------------------------|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 연중 | | | 본소 상담위원 |
| | 라오니모임 | 2/6 | 14명 | 프로그램 소개와 관계 형성 | 장희숙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 | 2/13 | 13명 | 폭력의 유형과 안전계획 | |
| | | 2/20 | 12명 | 자기돌봄 | |
| 2/27 | 11명 | 긍정 사고와 감정조절 | | | |
| 가정폭력행위자 성행교정 프로그램 |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 연중 | | | 본소 상담위원 |
| | 집단상담 | 2/5 | 13명 | 마음 날씨는 어떤가요? |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
| | | 2/12 | 11명 | 마음도 체할까? | |
| | | 2/19 | 12명 | 좋은 사람이 왜 나쁜 선택을 할까? | |
| | | 2/26 | 10명 | 가족관계,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는가? | |
| 동지교실 | 2/12 | 61명 | 아무리 해도 안될때 드는 마음, 답답함 |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 |

어떻게 할까요?



부모와 자녀 ② - 양자, 친양자 ⑦

● 성년자는 협의로 파양할 수 있다

Q 문 49 | 저는 30년 전에 입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양부모와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이제 파양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파양을 할 수 없고 재판상 파양만 가능합니다(민법 제898조). 그리고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02조). 파양협의를 가 되면 파양신고서를 작성해서 양부모나 양자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4조, 제878조, 가족관계등록법 제63조, 제20조). 파양신고를 하게 되면 입양으로 인해 발생했던 친족관계는 소멸합니다.

● 미성년자는 협의로 파양할 수 없다

Q 문 50 | 미성년자를 입양했는데 파양하고 싶습니다. 당사자도 파양을 원하고 있는데 협의만으로 파양할 수는 없나요?

A 양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협의파양을 할 수 없고 재판상 파양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민법 제898조). ①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②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③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④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05조).

● 재판에 의한 파양 사유

Q 문 51 | 양자가 5년 전 가출하여 지금까지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파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귀하의 경우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재판을 통해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제3호).

양부모와 양자는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의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에는 입양의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06조).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2024) 중에서



Q 결혼한 지 5년 차 되는 40대 부부로 두 살 자녀를 두고 있으며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을 아끼는 것보다는 쓰고 싶을 때는 쓰면서 즐기는 성향이고, 아내는 미래를 생각해 지나치게 아끼고 모으는 성향이라 평소에도 경제관념의 차이로 다투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아내가 결혼 전부터 계속해오던 일이라, 아내가 비교적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편이고, 저는 아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제가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무능력하다며 타박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내가 저를 지적하고 비난할 때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좌절감이 느껴지고 불편합니다. 이런 이유로 자주 말다툼을 하다 몇 달 전에는 상호간 폭행으로 이어져 저와 아내 모두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부부는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앞으로 폭력의 중단뿐만 아니라 서로의 성격차이를 잘 받아들이고 부부가 건강하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A 두 분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며 폭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신 것을 깊이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남편과 아내께서 서로 다른 경제관념과 성격차이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부가 건강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시네요.

두 분의 폭력사건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의 절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됨에 따라 상담위탁 결정을 받게 되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법원의 위탁 기간 동안 상담을 받게 됩니다. 상담의 목적은 두 분이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폭력성행을 교정하여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다양한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온 전문 상담위원들을 중심으로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학 교수, 심리상담가 등에 의해 개별상담 및 부부(가족)상담, 집단상담, 음주문제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등으로 진행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하여 원가족관계, 결혼생활, 갈등이 반복되는 요인 등을 진단함과 동시에 두 분이 상담을 통해 변화되고 싶은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소한 말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부부가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각자의 방식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상담을 통해 변화된 점을 확인하고 이를 지지하면서 두 분께서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함께 모색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래서 문제야”, “당신은 도대체 왜 이래?”처럼 상대방의 고유한 기질을 바꾸려는 비난의 어조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갈등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상대방과 불편한 상황이 생긴다면 먼저 상대방의 말과 행동, 그리고 불편한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해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왜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었는지 말합니다. 이어서 상대방에게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요청해보세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어서 상대방의 생각도 묻는 질문을 하면서 비폭력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부부간에 건강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차연실 상담위원

좋은 책



책 표지 뒷편에 실린 소개 문구와 신형철 평론가의 말이 책을 읽은 후 내 마음과 너무 같았다.

“수월한 침묵과 자멸적 용기의 갈림길 그 앞에 움츠러든 한 도시민을 둘러싼 세계”

“불운의 출입구를 지나 본 이는 안다. 안락과 몰락을 가르치는 것은 더없이 연약한 경계선임을”

“... ‘키커니언 엔딩’이라고 부르고 싶은 그것의 본질은 무슨 반전 같은 게 아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감히 기대해도 될까 싶은 일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능성이 서사의 필연성으로 도약하는 지점에서 소설이 끝날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세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하나 얻게 된다. 이 작가가 단편 분량의 소설을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것에 나는 불만이 없다. 이런 결말 뒤에, 감히, 어떤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단 말인가.”

131쪽, 역대 부커상 후보 중 가장 짧은 소설이라는 클레어 키건의 소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읽었다. 먼저 읽고 영화도 본 『말겨진 소녀』와 다른 듯 같은 듯, 그래서 평론가는 뽀뽀한 표지가 이야기를, 특히 소중한 결말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던 것 같다.

1985년 겨울 아일랜드, 나라 전체가 실업과 빈곤에 허덕이며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작은 도시 뉴로스의 석탄 상인 ‘빌 펄롱’은 미혼모의 아들로 빈곤하게 태어나 일찍이 고아가 되었지만 집 주인이었던 미스즈 월슨의 따뜻한 호의를 입어 잘 성장할 수 있었고, 그런 본인이 그저 ‘운’이 좋았음을 민감하게 자각하는 사람이다. 그는 지금 크게 부유하진 않아도 먹고사는 데 부족함 없고 딸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며 안정된 결혼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그는 따뜻한 잠자리에서 다음 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특권

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안온한 일상을 언제든 쉽게 잃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잊지 않고 살아간다. 그의 도시 뉴로스는 쇠락하는 중이다. 실업수당을 받으려는 사람들 줄이 점점 길어지고, 전기요금이나 석탄값도 내지 못하는 집들이 늘어난다. 펄롱은 이 스산한 풍경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모든 걸 잃는 일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아침, 펄롱은 수녀원으로 석탄 배달을 나가 창고에서 한 여자아이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사건에 대해 깨닫게 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하는 질문을 던지는 데까지 이르고 수녀원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마을에서 안락한 삶을 이어가던 펄롱은 위험이 예견된 용기를 내야 할지 아니면 딸들과 가정을 위해 자신도 침묵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진다. 그리고 펄롱은 마을에 흐르는 강을 오래도록 내려다본다.

이 소설은 아일랜드 ‘막달레나 세탁소’ 사건을 연상케 하는 이야기지만 사건에 대한 고발을 넘어 주인공이 삶에서 느끼는 비참함이나 따뜻한 기억에 주목하면서 인간의 실존적 고민과 삶의 본질에 다가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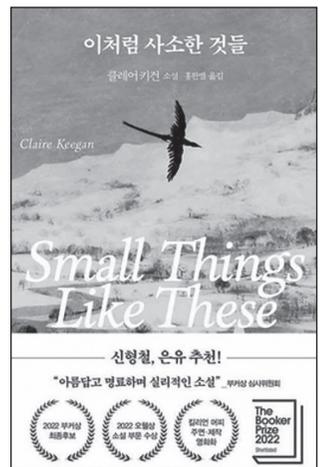
두 권의 책으로 사랑하게 된 작가, 클레어 키건은 1968년 아일랜드 위클로에서 태어났다. 17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로올라대학교에서 영문학과 정치학을 공부했고 웨일스대학교에서 문예창작 석사 학위를 받아 학부생을 가르쳤다. 더블린트리니티칼리지에서 철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24년간 활동하며 단 4권의 책을 냈다.

이숙현 편집부장

이처럼 사소한 것들

클레어 키건 소설
홍한별 옮김

다산북스, 2024(초판 70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실무수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소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소감을 신는다.

임 지 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가장 가까운 법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서 가족법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학기 가족법을 수강하고 2학기에는 리걸클리닉을 통해 가족법 실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심사를 확장하고 실제 소송기록들을 직접 작성해 보고 싶다는 마음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동계 실무수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리걸클리닉을 통해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방식이나 헛갈릴 수 있는 관할 등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이번 실무수습은 가족법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판례평석 과제작성,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참석, 가정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 상담 참관 등을 거친 후 제가 가족법을 훨씬 더 좁게 바라보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가족법 개정자문위원회를 통해 가족법을 지나치게 부부, 특히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닌지 반성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를 통해 아동을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권리주체로서 바라보는 것과 같이 법률을 이해함에 있어 시각을 더 깊고 넓게 바라보려 노력해야함을 깨달았습니다.

가정폭력피해여성 자조모임(라오니 모임)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피해자들의 관점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던 기회였습니다. 제3자적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배우자에 대한 불만과 연민, 사랑이 공존하는 상태

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단순히 법률적 조언만 건네는 것은 개인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고, 실습 첫날 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법률적 조언 외에 내담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판례평석을 작성하는 과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학습을 할 때에는 대법원 판례의 다수의견과 법리를 단순화하여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치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끄럽게도 대법원 판례의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까지 그 논리를 파악하려고 집중해 본 경험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과 논리 전개 방식을 집중해서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참관 과정에서 상담위원분들과 변호사님들이 내담자를 대하는 방식을 보며 지나치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내담자들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법적 쟁점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법조인으로서 만나게 될 의뢰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소 정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부 시절, 가정 문제의 해결을 통한 범죄 피해 회복과 일탈 예방에 관해 가져온 관심이 가족법과 법조 실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가족법 분야를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마음에 담아 두었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무수습을 할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험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 판례 안에 담긴 법리를 소화하는 데 집중하느라 정작 이 모든 사안들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인생에서 겪었던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놓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법학 공부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정작 처음 법조인을 꿈꾼 계기였던 사람의 권리 보장 및 공익적 가치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껴왔는데,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법조인은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가는 직역임을 깊이 실감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이 곳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다양한 실무 중에서도 법률상담은 참관했던 개별 사안이 모두 생각날 정도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재판에서의 변론뿐만 아니라 법률상담의 관점에서 변호사에게 ‘말’은 참 중요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뢰인을 직접 마주하며 어떠한 태도와 법적 접근법으로 상담 내용을 구성하는지에 따라, 유사한 내용이라도 전달력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과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여러 법률상담을 참관하며 변호사·전문 상담위원 선생님별로 각자 갖고 계신 접근법, 내담자가 제공하는 사실관계 속에서 법적 쟁점과 구제 수단을 도출해내는 방식을 모두 공부할 수 있어 참 유익했습니다. 어려운 법리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당장 법률 구조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차와 비용에 관한 질문들’을 보며, 어떻게 하면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 유료 상담을 통해 변호사를 알아보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답할 것인지 고민하

기도 하고, 내담자의 현실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가장 적합할 법률적 구제 수단이 무엇인지, 법률이 해결해주지 못한 심리적 피해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도록 조언할지에 대해 다양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교내 리걸클리닉에 참여하며 의뢰인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사용하는 사소한 표현의 차이에 따라 의뢰인이 남은 사법 절차에 대해 갖는 막연한 두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법률상담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번 실무수습에서 정말 다양한 법률상담을 참관하며 관심을 확장하고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법률상담 외에도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참관, 이곳에서 담당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학습, 소장 작성실습 및 법률구조서류 검토를 통한 소송구조사례 학습,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프로그램과 가정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프로그램을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각 업무가 가진 특성과 필요한 역량을 익히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전문으로 하는 가족법제에 관해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었고, 전문 분야를 지닌 법률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무수습 기간 동안 제가 느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한 사람의 삶의 회복에 대해 갖고 있는 따뜻한 태도를 바탕으로 법률 구조 이후의 삶까지 고민하며 법률 구조와 제도적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내담자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마음에 새기며, 한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효과적인 법률 구조를 제공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 전기 이사회 곽배희 소장 연임, 만장일치로 의결

본소의 2025년도 정기 전기 이사회가 지난 2월 27일 열렸다.

차명희 이사장, 김의재, 장명수, 곽배희, 조대연, 김명순, 김병후, 박영립, 김상용 이사와 최문원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이사회는 차명희 이사장의 개회, 전회 회의록 요약 보고, 감사보고,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건으로는 2024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어 소장선출과 관련하여 만장일치로 곽배희 소장의 연임을 의결했으며, 박영립, 김상용 이사에 대해 9월 28일부터의 유임을 의결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정기총회 일정에 대해서는 실무진에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관련사진 2면)

2025년도 제1차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직원재교육 경해

본소의 2025년도 제1차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김상용)가 지난 2월 6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직원재교육을 겸해 이루어진 이날 위원회에는 곽배희 소장을 비롯해 본소 직원들과 본소의 가족법개정자문위원인 김상용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전문센터장), 차선자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상용 교수의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의 도입'에 대한 발표에 이어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호주제 폐

지 20주년의 해를 맞아 이를 주도한 본소에서 개최할 기념 심포지엄 주제에 대한 토의도 있었다. (관련사진 2면)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진행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이 2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은 본소의 법률구조과정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참여, 실사례를 체험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법률지식을 현실에 접목, 활용해 볼 기회를 제공하여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공익 및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무수습은 오리엔테이션,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이해, 상담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이해, 법률구조서류 검토, 법률구조의뢰서 등 법률구조서류 작성, 사이버 상담 실습, 상담(본소 및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참관 및 보고서 작성, 변호사 업무 실습으로 소장 작성 및 판례 평석, 가정폭력피해자 자조모임과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교육강좌 참관 및 기록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실무수습에는 총 3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박소정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이유진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임지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상담소 도서실에 <세종도서 교양부문·학술부문>
도서 기증**



2025년 2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세종도서 교양부문> 도서 72권, <세종도서 학술부문> 도서 70권 등 총 142권을 상담소 도서실에 기증하였다. <세종도서 교양부문> 사업은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활성화와 책 읽는 문화 확산 기여를 위해, <세종도서 학술부문> 사업은 학문발전과 지식기반사회 여건 조성을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

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도서 기증은 지난 1월의 <문학나눔> 도서 기증에 이은 것으로 본소 도서실의 전문분야 양서 확충에 기여하고, 도서실 이용자들의 교양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강좌, 등지교실 열려

지난 2월 12일, 본소 강당에서 개인과 가족의 정신건강 및 행복한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강좌 「등지교실」이 열렸다. 이번 달 강좌는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드는 마음, 답답함'을 주제로 이서원(한국감정케어센터)대표가 강의하였다.

강사는 다양한 사례를 들며,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으므로 타인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이해

2025년 2월 상담통계

총 건수 4,372

법률상담(3,694건)

| | | |
|-------|-------|-----|
| 면접 | 전화 | 인터넷 |
| 1,073 | 2,517 | 104 |

| | | |
|------|-----------|------|
| 화해조정 | 소장 등 서류작성 | 소송구조 |
| 581 | 24 | 73 |

• 인터넷 정보 이용 63,991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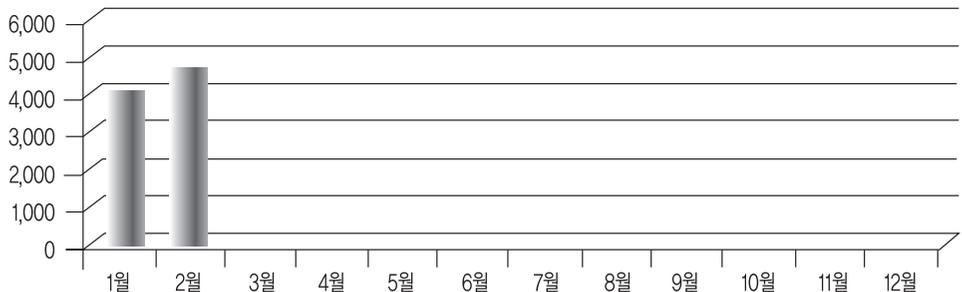
2025년 2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372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694건(84.5%), 화해조정 581건(13.3%), 소장 등 서류작성 24건(0.5%), 소송구조 73건(1.7%)이었다.

법률상담 3,694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5년 1월에 비해 이혼(19.4%→27.3%), 사실혼 해소(0.5%→0.6%), 친권·양육권(4.2%→4.5%), 혼인무효·취소(0.5%→0.6%), 친양자(0.4%→0.5%), 미

성년후견(1.2%→1.5%), 가사기타(18.1%→19.9%), 임대차(0.0%→0.1%), 채권·채무(0.2→0.4%), 파산(1.3%→1.4%), 민사절차(0.0%→0.1%), 형사절차(0.0%→0.1%), 형사기타(0.8%→1.0%)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694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073건(29.0%), 전화상담 2,517건(68.1%), 인터넷상담 104건(2.8%)이었다.

**2025년
월별
총건수**



하며 바라보면 관계에서 오는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오늘날 바라보는 시행착오를 겪는 삶이 아니라, 내일을 예측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며 약 2시간의 강의를 마쳤다.

이날 참석자들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을 다양한 예시로 풀어내어 이해하기 쉬웠다는 소감을 전했다.

특히, 가정에서부터 '그럴 수밖에 없지'라는 태도로 서로를 이해한다면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해결될 것 같다는 의견도 전했다.

다음 강좌는 3월 12일 '내가 한 것보다 적게 받을 때 드는 마음, 섭섭함'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동국대학교

김세중, 이채린 (2025.2.1. - 2025.2.28.)

이화여대

권윤아, 배예은 (2025.1.2. - 2025.2.28.)

● 출장 법교육

2.13. 강서지역자활센터

- 생활법률강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채권채무에 관한 법률

: 박슬기 변호사

2.14.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025년 제1차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의

: 김민선 변호사

2.17. 법무연수원

- 검사대상 2025년 공익대표 직무역량 강화 과정

: 김민선 변호사

2.27. 가족법교육 - 자원봉사자대상

: 조은경 상담위원

2.28. 가족법교육 - 자원봉사자대상

: 조은경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김지은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2월 5일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사건을 조정하였다. 6일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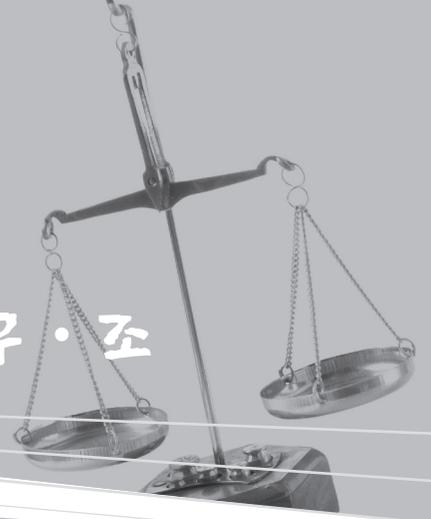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2월 3일부터 2주간 진행된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을 관장하고 상담참관 등을 지도하였다. 6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사건을 조정하였다.

곽배희 소장,

이화여대 총장 취임식 참석 등

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지난 1월 8일 본소 기간제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24일에는 이화여대 김영의 홀에서 열린 제18대 이향숙 총장 취임식에 참석하였다.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아내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법률구조 2023-1-222

담당 : 강종협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40대)는 2021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남, 2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원고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자주 하였다. 피고의 폭력적 성향은 2022년 경 심화되어 원고를 무시하고, 원고에게 폭언, 폭행을 하며 기물을 파손하기도 하였다. 특히 2023년 8월경 피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와 다투다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선풍기, 텔레비전, 장난감 등을 던져 망가뜨렸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부친지원 2025. 1. 2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5.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별지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8. 제2항,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외박을 반복하다 가출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법률구조 2024-1-183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40대)는 2023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여, 1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결혼 초반부터 수시로 외박하는 등 가정에 소홀했다. 결혼 초반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씩 무단외박을 하더니 1년 전 집을 나가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피고는 가출할 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순금 30돈을 원고 모르게 가지고 나가기까지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5. 1. 2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부터 2025.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5. 1. 22.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2의 가항, 제4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혼외자 출생 후 연락두절 된 친부에 대한
인지 판결**

법률구조 2024-1-317

담당 : 황미옥 변호사

사건명 : 인지등

내용 : 원고(여, 20대)는 피고(남, 20대)와의 사이에서 사건본인(남, 1세)을 포태하여 2023년 출산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바 없어, 사건본인은 아버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로 출생신고 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사건본인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피고에게 알린 후 다시 만남을 이어가다가 2023년 6월 헤어진 직후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원고는 2023년 8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출산 사실을 알렸고, 피고가 사건본인을 보면서 다시 원고와 교제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갈등이 발생하였고, 연락마저 단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사건본인과 피고의 법률상 부자관계를 밝히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5. 1. 22.)

1. 사건본인은 원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7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5.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피고는 2025. 1.부터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과 방법: 원고와 협의하여 정한 일정과 방법으로 면접교섭

나.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다. 원고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히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3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 위협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4-1-404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40대)와 피고(남, 50대)는 2012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들(각 여, 9세, 14세)을 두고 있다. 원고는 베트남 국적자이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피고는 화가 나면 원고의 뺨과 머리를 수시로 때렸으며, 물건을 던지고 원고의 목을 조르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욕을 하며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 특히, 2024년 3월경 피고는 화를 내며 핸드폰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칼로 원고를 위협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25. 1. 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5. 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6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생략함)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5년 3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 ▶ 일시 : 매주 평일 상시
- ▶ 강사 : 본소 상담위원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5년 7월 10일, 11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방법 및 장소 : 대면강의, 본소 8층 A 강의실
- ▶ 일정 및 강의주제

| 일정 | 강의 제목 |
|---------|-------------------|
| 7월 10일 | 인간의 마음, 사랑과 분노 |
| 11월 13일 | 갈등의 해소와 함께 살아가는 법 |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 관련 법률·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5년 7월 17일 ~ 19일(2박 3일)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삼성생명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등지교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행 : 이서원 대표(한국감정케어센터)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 일정 | 강의 제목 | 강사 |
|---------|----------------------------------|----------------------------|
| 3월 12일 | 내가 한 것보다 적게 받을 때 드는 마음, 섭섭함 |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
| 4월 9일 | 뒤늦게 오는 깨달음, 후회 | |
| 5월 7일 | 나에게 잘 한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드는 마음, 미안함 | |
| 6월 11일 | 모든 것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은 하나를 찾는 마음, 다행 |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7월 9일 | 부리에 가해진 충격, 아동기 정신건강 | |
| 8월 13일 | 과도한 자기중심성, 자기애성 성격장애 | |
| 9월 10일 | 균형의 상실, 경계선 성격장애 | |
| 10월 15일 | 누적된 스트레스의 범람, 공황장애 | |
| 11월 12일 | 시간의 멈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 |
| 12월 10일 | 끝없는 도피, 중독 | |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6년 1월 13일(화) ~ 15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혼인 관련 법률
 - 이혼 관련 법률 / 부모·자녀 관련 법률 / 후견 관련 법률 / 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 교육일정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우리 가족 행복캠프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삼성생명 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상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시 ▶
2025년 7월 17일~19일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